



▲ 영화감독 임순례는 “기성세대로서 이 시대 청춘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담았다. 주인공 김태리(왼쪽)에 대해서는 “한국영화에 딱 떨어지는 대담한 선물 같은 배우”라며 무한 신뢰를 보였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영화 ‘리틀 포레스트’로 돌아온 임 순 레 감독

애잔한 청춘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죠

나도 ‘제보자’ 연출 끝낸 뒤 모든 걸 관둘까 생각
카라 일 전념·시골서 생활…자연과 동물로 힐링
김태리, 피자 김연아 같은 배우…선물 같은 존재

어떤 영화를 선택하는 일은 전적으로 관객의 마음에 달렸지만 간혹 누구에게나 ‘선물’이 되는 영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보는 것만으로 위안과 행복을 맛보는 그런 영화 말이다.

‘리틀 포레스트’(제작 영화사 수박)가 그렇다. 임용고시에 낙방하고 시골 고향집으로 내려온 주인공 해원(김태리)이 직접 지은 농작물로 밥을 지어먹으며 사계절을 보내는 이야기. 특별한 것 없는 이 이야기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기획은 물론 배우들의 연기도 탁월하지만 무엇보다 연출을 맡은 임순례(58) 감독의 힘이 절대적이다.

30~40대 영화감독이 주류를 이룬 영화계에서 50대 후반의 여성감독의 존재는 낯설다. 또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나 ‘제보자’ 같은 상업영화부터 규모가 작고 개성이 확실한 이번 ‘리틀 포레스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실력자는 더욱 드물다. 게다가 동물보호 등 다양한 사회운동까지 벌인다. 에너지가 상당한 감독은 그만큼 웃음도 많았다.

● ‘청춘’ 향한 애잔함…“기성세대로서 고민”

‘리틀 포레스트’가 담은 위안의 메시지는 이 시대 청춘을 향해 있다. 영화의 원작인 일본 만화와 전혀 다른 색깔의 작품이 탄생한 데는 ‘젊은이’를 바라보는 감독의 특별한 시선이 작용했다.

“어느 국가든 젊은이가 그 사회의 핵심 코드이다. 내 조카들도 20대, 30대 초반이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걸 옆에서 보면 우리 영화의 해원과 비슷하다. 직업을 확실히 갖기도 쉽지 않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는 것 같다. 아, 이 친구들이 정말 많이 어렵겠구나. 기성세대로서 그들에게 무얼 해줄 수 있을까, 애잔한 마음이 있다.” 감독의 말은 계속됐다.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벌써 ‘3포세대’, ‘N포세대’ 같은 말도 오래됐고, 사실 청춘의 특권은 자유로움과 연애, 정령 그런 건데. 요즘 아이들은 결혼과 육아도 편히 생각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

감독의 시선이 향한 20~30대 관객은 영화에 다양한 평가를 내놓는다. ‘힐링영화’라는 평가는 기본. ‘설탕 없이도 단맛이 나고 조금 치지 않아도 짭짤이 나는 영화’부터 ‘본격 사표 자극 영화’라는 평도 눈에 띈다.

동시에 영화는 ‘천천히 가도 된다’고도 이야기한다. 이는 임순례 감독의 ‘지향’과 닮았다.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 보통 7, 8명이 뛰었다. 내 실력대로면 5, 6등은 할 텐데, 달리다보면 뒤의 아이들이 나를 제치려고 마구 달리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냥 길을 내줬다. 성향자체가 누군가와 경쟁하는 걸 싫어하니까. 누군가 이겨보고 싶단 마음도 크게 없다. 지금도 운전할 때 끼어들면 전부 비껴준다.(웃음)”

● ‘김태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임순례 감독은 한양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제8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1996년 ‘세 친구’로 데뷔했고 2001년 ‘와이키키 브라더스’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작품을 통해 황정민과 박해일, 류승범이 동시에 한국영화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화계에서 ‘캐스팅이 어렵지 않은 감독’으로도 통한다. 함께 작업한 배우들이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어서다. 김태리가 이번 작품에 참여한 것도 임순례 감독의 존재는 중요했다.

“스켈레톤 윤성빈이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지 않나. 김태리가 그렇다. 한국영화에 딱 떨어지는 선물 같다. 김태리는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레 드러내고, 그 생각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친구다.”

그는 이번 영화에서 새로운 신에도 발광했다. 김태리의 친구로 등장하는 진기주이다. 독립영화 쪽 신인부터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까지 두루 물색한 끝에 찾아낸 ‘원석’이다. 임순례 감독은 “통통 튀는 매력, 순수한 성격에 탄탄한 기본기까지 갖춘 친구”라고 했다.

● 동물보호 운동, 영화계 성평등 운동도 시작

임순례 감독은 “자연과 동물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라고 했다. 이런 자연과 동물은 ‘리틀 포레스트’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만하다. 감독이 스크린에 담은 사계절은 단순하게는 그 계절의 풍광부터, 세밀하게는 각 계절에 심고 키워야 하는 작물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실제로 감독은 벌써 13년째 경기도 양평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예전엔 국내 여행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집이 자연 그 자체이다. 얼마 전 시나리오 작업하러 여러 곳을 다녔는데 우리 집만큼 조용한 곳이 없더라. 하하! 시골에 살고 고기도 먹지 않으니까 웬만한 건 자급자족이다. 밭에 상추 배추 쪽파 토마토 같은 거 심고, 아침에 일어나 풀 뽑고 물주는 게 일과와 시작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도 임순례 감독과 땀 수 없다. 2009년부터 10년째 카라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진돗개도 안락사 위기에 처한 강아지를 제작진이 입양해 키우면서 촬영했다. 현재 동물에 관한 영화도 구상하고 있다.

“‘제보자’ 연출을 끝낸 뒤 정말 모든 걸 관두고 카라 일에만 전념할까 심각하게 고민도 했다. 그런데 한쪽 마음은 여전히 영화를 쥐고 놓지 못했다.(웃음)”

이달 새로운 활동도 시작했다. 그를 주축으로 여성영화가인 모임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 문을 열었다. “미투 운동보다 먼저 공감대를 나눠 출발했다”고 밝힌 감독은 “여성들이 한국영화 현장에서 성적인 억압 뿐 아니라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고, 앞으로 방향을 함께 고민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영화로 계속된다. 다음 연출작은 화가 이중섭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호프 월드’ 타임 선정 금주의 노래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3일 ‘금주 당신이 들어야 할 5곡(5 Songs You Need to Listen to This Week)’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믹스테이프 수록곡 ‘호프 월드’를 비롯한 5곡을 소개했다. 타임은 “믹스테이프의 앨범명과 같은 첫 번째 트랙 ‘호프 월드’는 랩이 중심이 되는 밝고 신선한 곡”이라며 “한국어로 노래한 이 곡은 제이홉의 전연성 강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놓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제이홉은 2일 첫 믹스테이프를 공개했다. ‘호프 월드’는 공개 직후 전 세계 63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한국 솔로 가수 최다 기록을 세웠다.

김남주, 드라마배우 브랜드평판 1위

김남주가 드라마배우 브랜드평판 2018년 3월 조사 결과 1위에 올랐다. 2위는 이승기, 3~5위는 김선아, 감우성, 박진화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월2일부터 3월3일까지 방영한 드라마에 출연중인 배우 100명의 브랜드 빅데이터(1억 5923만6167개)를 분석,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량, 미디어량, 소문량을 측정했다. 김남주는 드라마 ‘미스티’에 출연중이며, 이승기는 4일 종영한 ‘화유기’에 출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김남주 브랜드는 빅데이터 링크 분석에서 ‘용기나다, 썩다, 놀라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미스티, 패션, 자진회’가 높게 나왔다. 공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비율 54.61%로 분석됐다.

‘남궁연 성폭력’ 네 번째 피해자 등장



남궁연

드라마 남궁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네 번째 피해자가 등장했다. 4일 방송된 SBS ‘8 뉴스’에서 A씨는 “2006년 친분이 있던 남궁연으로부터 ‘공연에 필요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위해 여성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누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3일에는 B씨가 “2000년대 초 남궁연의 성추행이 있었고, 그런 일이 몇 번 벌어진 다음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남궁연의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2월28일 처음 나온 이후 4일까지 모두 네 차례 등장했다. 남궁연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MBC ‘서프라이즈’로 낮익은 재연 배우 박재현(38)이 3일 결혼했다. 그는 또 올해 아빠가 된다. 박재현은 이날 오후 인천 부평의 웨딩홀에서 16세 연하의 직장인과 웨딩마치를 올렸다. 개그우먼 정은숙이 진행을 맡았고, 트로트가수 바나나(조재형)이 축하를 불렀다. 김하영 손윤상 김민진 등 ‘서프라이즈’에 함께 출연하며 오랜 시간 우정을 쌓은 배우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 알게 돼 연인으로 발전했다. 신부는 임신중이며 열내 출산할 예정이다. 박재현은 EBS 청소년 드라마 ‘감성시대’에 출연하며 청소년 배우로 얼굴을 알렸다. 2002년부터 ‘서프라이즈’에 출연 중이다.

부정입학 논란 정용화 “날 믿어달라”

대학원 부정입학 논란에 휩싸인 정용화가 “내 말만 믿어달라”고 말했다. 정용화는 3일 열린 자신의 콘서트에서 “군대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고 싶었다. 무조건 군대 가기 전에 공연하겠다고 해서 하게 됐다”면서 “저를 믿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서로 믿어주고 행복한 시간이 많아서 보상 받는 기분이다. 앞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인사했다. 이어 “SNS에도 글을 올렸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지만, 그 외 이야기는 제 말만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용화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